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원년... 순천 새로운 도약”

LOCAL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순천문화재단, 문화체육 등 3대 추진전략 발표 예술 생태계 구축·예술인 창작 역량 강화 추진

순천문화재단이 올해를 문화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4일 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체육’과 ‘문화기움’, ‘문화피움’ 등 3대 전략을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문화체육’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기움’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감수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재단은 창립 이후 5년간 총 5664건, 6억3000만원의 모금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기초 자원을 마련해 왔다. 이는 지역 문화 예술을 위한 소중한 씨앗으로써 창작지원, 문화교류, 단체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됐으며 활용 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문화기움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3000원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문화예술지원시스템 도입 등 창작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혁신 문화행정을 추진한다.

‘문화피움’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감수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3월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을 맞춤 지원하는 ‘순천 문화자산 발굴 및 콘텐츠 지원사업’,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 ‘예



지난해 4월 순천문화재단 ‘슬기로운관광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활동 모습.

술단체 공간지원사업’,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 4개 분야의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순천문화기획학교’ 및 ‘문화자치지원’ 사업도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피움’은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며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공간대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년간 67만명이 관람한 ‘아고라 순천’은 이제 재단의 대표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공연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역 예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200여명의 예술인이 참석해 올해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과 공모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정원과 박물관으로 다져진 기반 위에 문화콘텐츠로 경제의 한 축을 세우 도시 전역을 촘촘히 채워가겠다”며 “문화예술인들께서도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해 미래를 상상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흥, 지역상품권 가맹점 확대 소상공인 대상 연중 수시 모집

장흥군은 장남진장흥사랑상품권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유휴주택, 사행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규 가맹점 신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청 경제산업과에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제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4일부터 사용자 편의 증진과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모바일상품권(QR코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며, 정책발행을 위한 신규 정책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신규 가맹점 확대를 통해 장남진장흥사랑상품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품권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가맹점 가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여수, 가족사진 촬영비 지원 다자녀 가정...14일까지 접수

여수시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여수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이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자녀 수, 거주기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40가정을 선정하고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정은 지정된 기간 내에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사업 참여자와 가족사진 전시 및 전달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광양, 청년정책 5대 분야 50개 사업 확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광양시는 최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로,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및 기타 청년정책 관련 사업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위원장)과 위원 17명이 참석했으며, 정시장은 위원회 심의에 앞서 신규 위촉된 청년 및 전문가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광양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청년정책 의견수렴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올해 광양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이 꿈을 펼치는 청년친화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총 198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에서 총 5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등 총 9개 사업이 진행되며, 5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 운영 등 15개 사업에 총 5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독랑만에 바다 내음 예술 ‘파래’ 가득 최근 장흥 관상을 삼산방조제 인근에서 지역 어민이 파래를 수확하고 있다. 건강한 식재료로 각광 받고 있는 파래는 철분과 칼륨, 요오드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랑만 청정해역에서 자라는 파래는 향이 깊고 식감이 부드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제공=장흥군

장성, 1110억 규모 공모사업 추진 ‘속도’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등 대응방안 논의

장성군이 1110억원 규모의 중앙부처·전남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김한중 군수 주재로 공모사업 대응 계획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중앙부처·전남도 공모사업 중 군에서 추진 가능한 40건, 총사업비 111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설명과 계획,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2023년(취터분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장성산 농특산물을 이용한 상무대 상생급식 메뉴 개발, 황룡시장 활성화 및 시설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6월 특화음식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특히 방송인이지 요리연구가, 외식사업 가인 백준영 대표의 취터분코리아와 함께

하는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황룡면 교통 원스톱을 취약지역 생활 거점 개조사업, 국산 목재·목조건축 실현 사업,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 사업도 발굴됐다.

김한중 군수는 “지역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이현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함평농기센터, 농가 지원 강화...52억 투입

함평군이 약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 지원에 나선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도 농촌지도 시범·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가 개최됐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문종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농업 관련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해 농촌지도 시범·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며 함평군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에서는 신청 농가의 현지 실태 조사 등 객관성과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시범·지원사업 49개와 대상 농가 163곳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총 52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농 지원 분야에서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등 18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보급 분야에서 ‘애호박 연중 생산 종합기술 보급’ 등 31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물탱크도장공사

화장실공사

인증 및 특허 사회적기업인증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건설업등록증

공공기관 실적

- 목포시 수영장물정비사업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비파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장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심함배수장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거문도등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심향교 복원교 교량단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 1번길 51 ☎ 061-285-6100